

— 살기 좋은 스마트 교통도시 조성 위한 해외선진사례 벤치마킹 —

복지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수 원 특 레 시 의 회
[복지안전위원회]

목 차

I. 연 수 개 요	3
II. 연수단 명단	3
III. 주 요 일 정	4
IV. 중점연수 내용	5
V. 방 문 국 현 황	5
VI. 주 요 방 문 지	6
VII. 연 수 후 기	10

- 살기 좋은 스마트 교통도시 조성을 위한 해외선진사례 벤치마킹 - 복지안전위원회 국외연수 결과보고

- 우리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우수사례 수집과 정책발굴로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한 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결과보고임.

I 연수개요

- 연수기간 : 2022. 9. 19.(월) ~ 9. 24.(토) 【4박 6일】
- 연수국가 : 아랍에미리트(두바이, 아부다비)
- 연 수 단 : 총 10명
 - ▶ 복지안전위원회 위원 : 7명
 - ▶ 수행 공무원(의회사무국) : 3명
- 주요내용
 - ▶ 두바이 도로교통국 운영 친환경 대중교통 시찰
 - ▶ 도심 내 도시개발, 맞춤형 복지행정 우수사례 기관 방문
 - ▶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모델과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사례 수집
 - ▶ 의정활동과 정책방향 도출에 참고를 위한 자료수집

□ 벤치마킹 추진을 위한 회의결과

【1차 간담회】

- 일 시 : 2022. 7. 20.(수) 10시
- 장 소 :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실
- 참 석 자 :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위원 8명, 관계공무원
- 주 제 : 상임위원회 「2022 공무 국외출장」 추진 방법
- 주요내용(의원 간 토론)
 - 국외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한 다양한 정책제안의 기회 확대
 - ☞ 공무 국외출장의 필요성 공감 - 참석의원 모두
 - 공무 국외출장 추진 방법 이견
 - 1안) 타 상임위의 모범 사례까지 함께 학습하고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타 상임위와 같이 공무국외출장 추진
 - 2안) 상임위 활동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벤치마킹과 연구학습을 위하여 복지안전위원회만 단일 공무국외출장 추진
- 결 론 : 명확한 주제와 목적을 설정하여 위원회만 단독 추진으로 결정

【2차 간담회】

- 일 시 : 2022. 7. 27.(수) 17시
- 장 소 :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실
- 참 석 자 :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위원 8명, 관계공무원 등
- 주 제 : 방문희망국가 및 기관방문분야 논의
-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 소관 사업 분야 선진지 검토
 - 의원 간 주요 관심분야 및 방문희망국가 토론
 - 연수 중점 분야 관련 선진 우수 기관방문 섭외 추진
- 결 론
 - 공무 국외 출장지 및 기관방문분야 선정 : 아랍에미리트
 - 기관방문분야 선정 : 친환경 교통 시스템 기반시설 및 운영 현황, 스마트 교통시설 현황, 다양한 대중교통 시설 분야, 도심속 녹지분야, 복지교육기관 등

II 연수단 명단

구 분	직 위	성 명		비 고
		한 글	영 문	
복 지 안 전 회 위 원	위 원 장	정영모	Joung Young Mo	단 장
	부 위 원 장	국미순	Kook Mi Soon	• 해외 선진사례 및 정책 사례 비교, 벤치마킹 등 • 연수분야 우수자료 수집 • 결과보고서 작성
	의 원	이대선	Lee Dae Sun	
	의 원	김동은	Kim Dong Eun	
	의 원	사정희	Sa Jung Hee	
	의 원	김은경	Kim Eun Kyoung	
	의 원	이희승	Lee Heui Seung	
의회사무국	복 지 안 전 전 문 위 원	김기환	Kim Gi Hwan	• 공무국외출장 지원총괄 • 의견조율 및 홍보활동
	주 무 관	김지환	Kim Ji Hwan	• 출장 계획 및 추진 • 기관방문일정수립 및 기록 • 현지 자료 수집 등
	주 무 관	유명식	Yoo Myong Sik	

Ⅲ 주요일정

일자	방문지역	교통	시간	일 정
1일차 9. 19. (월)	수원 ⇒ 두바이	EK323	19:00 20:30 23:55	수원출발 인천공항 도착 인천공항 출발
2일차 9. 20. (화)	두바이	전용버스	04:25 11:00 16:00 19:00	두바이 국제공항 도착 [두바이 도로교통국 운영 대중교통 시찰] 팜 주메이라 모노레일(편도) 탑승 노면전차(트램), 마리나 워터버스 탑승 두바이 최대 쇼핑센터 두바이몰 견학
3일차 9. 21. (수)	아부다비	전용버스	09:00 10:30 14:00 18:00	아부다비 이동(1시간 30분 소요) [아부다비 문화관광 및 시내견학] 그랜드 모스크 방문 에미리트 팰리스 호텔 전경 등 조망 두바이 복귀(1시간 30분 소요)
4일차 9. 22. (목)	두바이	전용버스	10:00 13:30 16:00	[복지정책 기관방문] Senior's Happiness Centre(요양센터) 방문 [도시교통정책 기관방문] 두바이 도로교통국(RTA) 방문 사막사파리 투어
5일차 9. 23. (금)	두바이	전용버스	10:00 16:00 20:00 22:00	버즈 칼리파 전망대 조망 [두바이 도로교통국 운영 대중교통 시찰] 아부라(수상택시) 체험 두바이 분수쇼 감상 두바이 국제공항 도착
6일차 9. 24. (토)	두바이 ⇒ 수원	EK322	03:40 17:00 19:00	두바이 국제공항 출발 인천공항 도착 수원 도착

IV 중점연수내용

연수분야	중 점 연 수 내 용
교 통 정 책 분 야 (중 점 추 진)	○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도시 교통 서비스를 구축하고, 살기 좋은 스마트 교통도시 조성을 위한 우수 사례 벤치마킹 •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과 선진 교통정책 수집
복 지 정 책 분 야	○ 복지정책, 시설운영 등에 대한 사례연구 및 비교자료를 참고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지역복지 안정망 구축방안을 모색

V 방문국 현황

구분	내용	국기
국 명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UAE)	
연 방 창 립 일	1971.12.2.	
수 도	아부다비	
인 구	총 928만 2,410명	
면 적	83,600km ² (한반도 면적의 약 37%, 전 국토의 97%가 사막)	
화 폐 단 위	디르함 (AED)	
종 족	아랍족, 외국인 (주로 아시아계, 이란계)	
공 용 어	아랍어 / 영어, 이란어, 힌디어, 우르드어 등 통용	
종 교	이슬람교 약 96%, 기독교 및 힌두교 약 4%	
기 후	고온 다습한 사막 기후	
GDP	3,589억불 (1인당 GDP 38,661불)	
정 부 형 태	대통령 중심 연방제 (7개 에미리트로 구성)	

구분	두바이	아부다비
인 구	약 340만명	약 323만명
면 적	4,144 km ²	67,340 km ²
특 징	UAE(아랍에미리트) 내 7개 토호국 중 두 번째 규모	UAE의 수도이자 대통령 및 연방정부 소재지

VI 주요 방문지

방문지명	팜 아일랜드 모노레일, 노면전차(트램) 탑승		
방문목적	두바이 도로교통국(RTA)에서 운영 중인 대중 교통수단 체험 및 인프라 구축 현황 시찰		
현황	○ 모노레일 : 인공 섬 팜 주메이라를 관통하는 교통수단으로 무인으로 운행. 일 평균 4만여 명이 이용하며, 바다 풍경을 즐기기 좋아 관광객에게 특히 인기가 많음. ○ 노면전차(트램) : 2개의 노선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 대당 최대 35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음. 골드클래스와 여성 전용 칸이 있으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됨.		
현장사진			
	모노레일 승차장	모노레일 내부	모노레일 외부 풍경
			
	트램 승차장	탑승 전 티켓팅	트램 내부
시사점	○ 메트로, 모노레일, 트램이 도심 교통체증의 대체 수단으로, 연계하여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함. ○ 모노레일의 경우, 단순한 이동 외에 추가적인 관광과 이와 관련된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노선이 설계된 것이 인상적이었음. ○ 트램의 경우, 세계 최초로 모든 승차장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였으며, 도로 이용에 있어 일반 차량, 자전거, 행인보다 우선권을 부여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음.		

방문지명	마리나 워터버스, 아부라(수상택시) 탑승	
방문목적	두바이 도로교통국(RTA)에서 운영 중인 대중 교통수단 체험 및 인프라 구축 현황 시찰	
현황	○ 마리나 워터버스 : 두바이 크릭을 가로지르는 교통수단으로 4개의 선착장으로 운행 중. 선착장에는 워터택시 등 다른 교통 수단들도 정박. ○ 아부라(수상택시) : 1디르함(약 3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한 두바이 전통 목선. 두 개의 선착장을 반복해서 오가는 교통수단으로 약 5분정도 소요.	
현장사진		
	마리나 워터버스 탑승	아부라(수상택시) 탑승
		
	마리나 워터버스 이동 경로에 따라 보여지는 고층 빌딩의 모습	
시 사 점	○ 마리나 워터버스의 경우 두바이의 경제적 성장을 상징하는 초고층 빌딩숲을 감상할 수 있으며, ○ 아부라(수상택시)의 경우 옛 시가지와 시장을 연결하며 두바이의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음. ○ 두 개의 교통수단 모두 관광 용도로써의 기능이 어우러져 있으며, 각기 다른 특색을 띄고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방문지명	[도시교통정책 기관방문] 두바이 도로교통국(RTA) 방문
방문목적	트램,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에 따른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선진 교통정책 수집
현황	○ 두바이의 대중교통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관리를 하며, 이를 컨트롤하는 기관은 두바이 도로교통국(RTA)임. ○ 2005년에 설립하여 3개 부서(기획부, 재정부, 기술부)에 현재 5,400여 명의 직원이 근무 중.
현장사진	   도로교통국 관계자와의 면담
주요 질의응답	○ 질문 1.(김동은 의원) 트램 도입 시 고려사항은? → 두바이의 경우 '트램 시그널'을 도입하여 다른 교통수단과 철저히 분리를 하였음. 이를 위해 최초 계획을 세우는 데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시행사 선정 시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음. ○ 질문 2.(김은경 의원)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 시 유의점은? → 두바이 도로교통국은 빅데이터를 통한 정보수집 후 분석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나, 유연성 또한 중요시 함. 수원시 또한 수요예측이 어긋날 경우를 대비한 정책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음. ○ 질문 3.(사정희 의원) 현재 두바이의 전기차 지원 정책은? → 주차요금과 하이패스 요금을 지원하며, 쇼핑몰의 경우 전기차 충전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음. ○ 질문 4.(이대선 의원) 공유자전거나 스쿠터 이용자의 사고가 많은지? → 법률 제정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음. 스쿠터 등록제와 나이제한(15세 이상), 속도제한(20km)을 두었으며 전용도로를 지정하였음. 또한 헬멧과 안전조끼 착용을 의무화하였음.

방문지명	[복지정책 기관방문] Senior's Happiness Centre(요양센터) 방문
방문목적	복지정책과 시설운영 등에 대한 비교를 통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지역복지 안정망 구축방안 모색
현황	○ 두바이 보건청이 운영하는 정부시설로, 노인들의 의료와 간호를 24시간 운영하는 요양센터. ○ 60세 이상의 무연고자 환자 20여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자부담 없이 100% 정부 지원으로 운영됨. ○ 두바이 주민만이 입원 가능하며, 다른 토호국 환자들은 외래진료만 실시.
현장사진	   요양센터 관계자와의 면담    요양센터 내부 시찰
주요 질의응답	○ 질문 1.(국미순 의원) 환자 1명 당 투입되는 인력은? → 현재 간호사 46명이 근무 중이며, 환자 수와 중증도에 따라 1명에서 최대 4명까지 투입됨. ○ 질문 2.(정영모 의원) 환자 사망 시 사후 절차는? → 두바이 보건청의 사후관리팀이 무연고 절차를 통해 조치. ○ 질문 3.(이희승 의원) 20여개의 병동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 중동 지역은 씨족과 부족 등으로 나라를 구성하여 혈연관계를 중요시함. 두바이는 자식의 부모 봉양이 당연시되어 입원 대상인 무연고자가 많지 않음. ○ 질문 4.(이희승 의원)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 먼 친척이나 이웃들의 신고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함.

-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이번 연수가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문국 선정에서부터 철저한 논의를 통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UAE를 선정하였다.
- 특히 이번 연수는 현 우리 시 추진 사업인 동탄도시철도(트램) 망포역 연장사업과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구축 등의 교통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 두바이 도로교통국(RTA)은 “막힘없고 지속가능한 이동수단”을 기치로 내세워 소비자 만족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었으며, 효과적이고 통합된 운동시스템을 위해 UAE 내 다른 국가들과의 연계활동도 병행하고 있었다.
- ‘세계 최초·최고·최대’의 수식어와 함께 막대한 자본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황량한 사막의 두바이를 오늘날 신도시 복합 문화의 도시로 성장시킨 그들의 모습에서 자신감과 자부심을 엿볼 수 있었다.
- 두바이 요양센터는 중증 독거노인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보건소와 같이 주민과 밀접한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중요하다며 우리 시의 보건소 운영을 잘해주길 바라는 당부가 있었다.
- 반면 아부다비는 국가 정치의 중심지로서 두바이에 비해 도시의 성장세와 규모는 상대적으로 뒤쳐진 상황이지만, 풍부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세계 유명 박물관을 유치하는 등 문화·레저 산업이 고속 성장을 이루고 있었으며 마스다르 스마트 시티 조성을 통해 친환경 저탄소·생태도시로 거듭나고 있었다.
- 이번 연수는 수원시와 UAE를 비교하면서 현지를 체험한 아주 귀하고 알찬 연수였다. 우리 시정에 반영할 우수한 사례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찰할 기회가 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경험들을 의정활동에 접목시켜, 우리 시의 특성을 살리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